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와 대통령도서관

최정태 |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나는 몇 해 전, 미국의 주도(州都) 오스틴의 텍사스 대학에 있는 존슨대통령도서관과 텍사스 A&M 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부시대통령도서관을 방문하고 문화적 충격을 받은 일이 있다.

미국의 대통령도서관은 미국 국민들이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는 명소며 성지였다. 루즈벨트가 퇴임 후 1940년 그의 고향 하이드파크에 도서관을 건립하고부터, 아이젠하워는 1962년 캔사스 에빌린에, 케네디는 1979년 보스턴 하버포인트에, 부시는 1997년 텍사스A&M 대학 캠퍼스에 각각 자신의 이름을 딴 도서관을 세우고 퇴임후의 활동을 그곳에서 펼친다. 이것이 전통으로 자리잡아 지금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도서관을 지어 국가에 헌납한다. 이런 도서관은 현재 10개나 되고, 클린턴도 그의 고향 아칸소 리틀록에 지난 12월 5일 건립공사를 위한 첫 삽을 들어 200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도서관은 통치자의 시대와 관련되는 통치사료만을 갖추는 기록관(archives)이 아니다. 또한 단순히 기념비적 전시물과 개인승배를 위한 박제된 자료만을 비치하는 박물관은 더욱 아니다. 그곳은 대통령의 기록물을 수집, 관리하며, 보존소를 겸한 연

구센터이자 이용하기 쉬운 일종의 특수도서관이다.

여기에는 그의 행적과 함께 관련되는 도서와 문서를 수집하고, 당해 대통령의 통치사료와 파일 그리고 국내외 관련 기록과 주변인물들의 구증(口證)자료를 함께 모아 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에게 공개하며, 동시에 주민의 '열린도서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1997년 11월 6일, 부시도서관을 개관했을 때 미국에 생존하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레이건 대통령을 제외한 4명의 대통령과 6명의 퍼스트 레이디들이 모두 모여 축하하고 덕담을 나눴다는 소식에 우리 국민들은 부러워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부러워 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부시여사가 독자적으로 그 도서관에서 어린이 독서교육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서 더 큰 부러움이었다.

부시도서관을 찾으면, 방문객에게 도서관을 소개하는 전단지들을 나눠준다. 몇 가지 전단지 안에는 부시여사가 운영자로 활동하는 <바바라 부시 가정교육재단> 안내서가 있다.

전단 첫머리에 <바바라 부시의 가정독서 비결>이라는 제목을 달고, "친구들에게" 보내는 부시여사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왜 소리를 내어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소리내어 읽는 비결"을 적어 놓았다. 그것은 부시여사가 독서 및 아동심리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자기가 직접 쓴 어린이 독서교육을 위한 일종의 지침서였다. 미국의 소시민을 위해 사례를 들어가며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했다.

새삼스럽게 온 사회가 어린이 독서교육을 중시하고 있는 요즘, 자기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한국의 젊은 엄마들, 전자매체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어린이자료실'을 맡고 있는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그 내용을 읽어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서정희

출판저널·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현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정기구독문의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의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일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